전국 법인 설립 느는데 광주·전남은 뒷걸음

3분기까지 8만61개 새로 생겨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
수도권 집중화·인력난 영향 광주 9.7%, 전남 4.2% 줄어

올들어 3분기까지 법인 설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반대로 법인 설립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법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3분기 신설법인 수가 8만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6851개보다 4.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광주는 2576개, 전남은 2687개의 법인이 새로 생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 277개(-9.7%), 전남 119개(-4.2%) 줄어든 것이다.

분기별로 보면 광주는 5분기 연속, 전남은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광주는 전년동기비 2018년 2분기 -8.5%, 4분기 -8.1%, 2019년 1분기 -11.6%, 2분기 -11.1%, 3분기 -5.8%를 기록했다. 전남은 올해 1분기 -5.6%, 2분기 -3.8%, 3분기 -3.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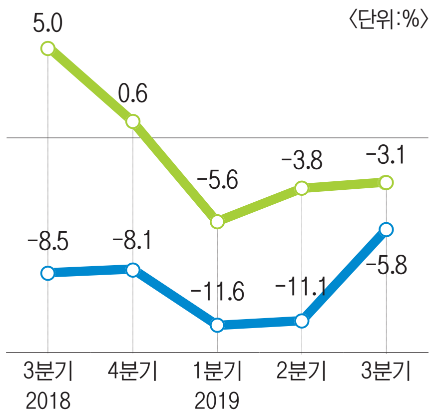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화와 인력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창업 열기가 식으면서 신설법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만6922개(21.1%), 제조업 1만4505개(18.1%), 부동산업 1만245개(12.8%), 건설업 8126개(10.1%) 순으로 신설 법인이 많았다. 부동산업은 지난해 7332개보다 2913개 늘어 법인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중기부는 신설 법인 증가에 대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려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증가율은 농·임·어업 및 광업(51%), 부동산업(39.7%) 등이 컸고 전기·가스·공기, 도·소매업은 각각 신설 법인 수가 62.2%, 3.7% 감소했다. 농·임·어업 및 광업은 농촌 융복합사업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시설재배업 법인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분기별 신설법인 증감률



3분기 신설법인 수는 2만61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553개(21.2%), 제조업 4654개(17.8%), 부동산업 3473개(13.3%), 건설업 2593개(9.9%) 순으로 신설 법인이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음식료품(22.2%), 인쇄·기록(52.0%) 등이 크게 늘었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5%), 정보통신업(10.8%) 신설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 연령별로는 40대 8853개(33.8%), 50대 6843개(26.2%), 30대 5559개(21.3%)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 증감률로는 30세 미만이 세운 신설법인이 16.3%, 60세 이상의 신설법인이 14.6%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7307개로 지난해 3분기보다 19.3% 늘었고, 남성 신설법인은 1만8853개로 같은 기간 5.1% 늘어났다.

이로써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작년 3분기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2.45 (-18.47)	↓ 금리 (국고채 3년) 1.51 (-0.05)
↓ 코스닥 661.85 (-3.29)	↑ 환율 (USD) 1167.80 (+7.00)

해양에너지 '19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

㈜ 해양에너지는 지난 11일 김형순 대표이사와 범진기 해양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모여 '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하고 노사화합을 다짐했다.

이번 조인식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영의 실현"의 의미를 담아 시행됐다. 특히 상호 협력의 의미를 담아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하며 결의를 다졌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사장은 "이번 합의는 회사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으며, 신노사문화 선언으로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지역인재채용,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역산업진흥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는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위니아대우 벽걸이 세탁기 '미니' 中 광군제 때 4초에 1대 꼴 팔려
중국 시장 공략 가속화

위니아대우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 때 4초에 1대꼴로 팔렸다.

위니아대우는 광군제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를 2만6000대 판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 달 판매량의 5배에 버금가는 매출로 4초에 1대꼴로 판매된 셈이라는 게 위니아대우의 설명이다.

광군제 기간 '미니'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天猫),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동닷컴(JD.com), 중국 최대 디지털 전자제품 쇼핑몰 수닝(蘇寧) 등에서 판매됐다.

위니아대우는 2014년 '미니'를 광군제에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참가해 누적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세계 최초로 출시한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는 세탁용량이 3㎏으로 두께 30.2㎝ 초슬림 제품이다. 벽면 설치가 가능하고 별도의 거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공간효율성과 함께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탁물을 넣고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중국 1인 가구 소비자들을 겨냥해 '미니' 신제품뿐 아니라 복고풍 레트로 디자인을 적용한 전자레인지 '더 클래식'도 선보여 약 8000대를 판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변진섭과 함께하는 '한낮의 힐링 콘서트' 성황

광주은행은 지난 12일 본점 1층에서 가수 변진섭을 초청해 임직원·고객들과 '작은 콘서트'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점심시간 문화공연
임직원·고객 가을 낭만 만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2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임직원, 본점을 찾은 고객들과 함께 '작은 콘서트'를 펼쳤다고 밝혔다.

'작은 콘서트'는 업무의 연속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여유를 가지고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수 변진섭을 초청해 가을의 낭만을 느끼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점심식사 후 한낮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참석해 바쁜 일상 속 직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음악을 감상하며 따뜻한 소통과 공감을 나눴고, 고객들에게도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치열한 경제·금융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원들에게 오늘 '작은 콘서트'가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갖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 광주은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주은행을 비롯한 우리 지역 기업에 진정한 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6시 PC-OFF제를 시행해 조기 퇴근을 장려하고, 초등학교 입학자녀 10시 출근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여름 효과' 3분기 흑자 전환

영업이익 1조2392억
1년 전보다는 소폭 감소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올 3분기(7~9월)에 '여름 효과' 덕에 4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1년 전보다 전기판매 수익이 줄어들고 환율 부담, 원전 이용률도 추가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한전은 올 3분기에 매출 15조9122억원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6조4098억원)보다 3.0% 줄었으나 전분기(13조709억원)보다는 21.7% 늘었다.

영업이익은 1년 전(1조3952억원)보다 11.2% 줄었다. 전분기에는 29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2410억원으로, 1년 전(7372억원)보다 무려 67.3%나 감소했다.

이로써 한전은 올들어 3분기까지 매출 44조2316억원과 영업이익 310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4530억원·5805억원)보다 각각 2.7%와 46.5% 줄어든 것이다.

한전은 올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판매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용 LNG 가격이 내려간 데 힘입어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줄어든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기판매 수익이 15조21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어들면서 흑자 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원전 이용률은 65.2%에 그치면서 1년 전(73.2%)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점검 주기가 돌아온 원전이 늘어나고, 지난 7월 한빛4호기 격납 건물의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됨에 따라 점검이 실시되는 등 전체적으로 예방정비 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관계자는 "경영환경 변화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설비안전을 강화하면서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등 재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